meritz 메리츠증권

Issue Comment

2021. 3. 3

자동차

현대 · 기아, 미국 M/S 상승 기조 지속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 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2월 미국 자동차 판매, 수요 회복 기조 속 반도체 재고부족 영향 발생

산업평균 대당 인센티브 $3,430 (−12%, 다섯 달 연속 감소) · 산업평균 딜러 재고일수 53일 (−25%)로 수요 회복 기조 확대 중.

다만 반도체 재고부족에 따른 생산차질과 적은 영업일수 (−8%) 영향으로, 총수요 (120만대, −13%)와 SAAR (1,630만대, −3%)는 감소.

3월 이후 상반기 판매 흐름은 C19 기저효과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이슈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인센티브 감소세 두드러질 전망. 2H21에는 반도체 재고부족 현상이 완화와 이연 수요 반영으로 최고의 판매 환경 구축 예정.

현대 · 기아, 차별화된 영업실적 기록 지속. 점유율 상승세 유지

양 사 합산 점유율은 8.3% (+0.5%p)로 18년 8월 이후 한 달을 제외하고 매월 상승 중. 현대 4.2% (+0.3p) · 기아 4.0% (+0.2%p). 성공적 신차 효과 통한 높은 수요로 재고 · 인센티브 차별화 지속.

현대 판매 50,735대 (−7%), 인센티브 $2,268 (+3%)

GV80 소비자 인도 시작 (20년 12월 출시)으로, 제네시스 판매 51% 상승 · 대당 인센티브 −64% 감소. GV80 대당 인센티브 $1,621으로 대표적 경쟁차종인 Lexus RX의 $5,265과 큰 격차. Luxury · SUV 판매비중 70% (+8%p)로 확대, ASP 믹스 개선 지속 중.

펠리세이드 6,354대 (−9%)/ $508 (−48%), 싼타페 8,318대 (+16%)/ $1,794 (−25%), GV80 1,283대 / $1,621.

기아 판매 48,062대 (−8%), 인센티브 $2,677 (−30%)

20년 2월 출시된 셀토스 (+89%) 신차효과 지속 중이며, SUV 판매비중 66%(+1%p)로 소폭 개선.

텔루라이드 6,637대 (−2%)/ $1,711 (−38%), 쏘렌토 5,730대 (−17%)/ $2,154 (−62%), 셀토스 5,297대 (+89%)/ $2,567 (+27%).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